

2013년도 7급 국가직 국어

일비스 고시학원 이선재

● 문항 분석표 및 총평

지식형	총 10문항	수능형(분석형)	총 10문항
국어문법 국어규범	형태론 - 품사의 변별(1) 표준어 표기 (2) 로마자 표기 (1) 올바른 문장과 언어예절 (1)	독해	단락 요약 (1) 주제 찾기 (1) 제목 찾기 (2) 내용 일치 (3)
어휘 한자	올바른 한자 표기 찾기(2) 고유어 뜻풀이 (1) 문맥에 맞는 한자어 찾기 (1)	현대문학	시 작품 분석 (1) 수사법 (1)
고전문법	중세 국어 문법 (1)	고전문학	소설 작품분석과 시조 (1)

이번 7급 국가직 국어 시험은 위의 문항 분석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식형 문제 10문, 수능형(분석형) 문제 10문이 출제되었다.

먼저 지식형 문제를 살펴보면, 국어 문법 및 규범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이에 반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어휘 및 한자에서 총 4문이 출제되어 이를 대비하지 못한 학생들이 고득점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의문형 종결어미를 묻는 고전문법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기도 하고 제시문을 주었으므로, 악명 높은 예년의 7급 고전문법 문제보다는 난도가 낮았다.

수능형 문제를 살펴보면, 예상했던 대로 모든 문제가 사실적 이해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특히 요약문 작성 과 주제 및 제목 찾기 문제가 총 3문이나 나와, 내용 일치 문제 유형과 똑같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특징적이다. 지문의 길이가 짧고 많이 대비했던 문제 유형이 나와 체감 난도가 낮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대 문학은 고은의 시 작품이 새롭게 출제되어, 기출 작품 이외의 것을 분석하는 연습을 한 학생이 유리했을 것이라 본다. 고전 문학 역시 <구운몽>의 주제를 시조로 찾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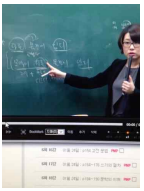
2013 7급 문제는 국어 규범 및 독해가 쉽게 나와 학생들의 체감하는 난도는 예년에 비해 낮았을 시험이었다. 그러나 품사 변별, 한자 표기 지식형 문제가 많이 나와, 이쪽을 꼼꼼하게 공부하지 못한 학생은 쉬운 체감 난도와는 달리 몇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지식형과 수능형 문제가 반씩 출제가 되었고, 난도 조절을 지식형에서 했다는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앞으로의 시험 역시 지식형과 수능형의 고른 안배라는 커다란 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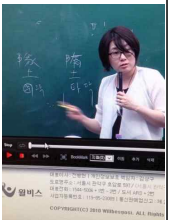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양쪽 모두를 대비할 것을 권한다. 또한 다음 시험에서는 어느 쪽 문제를 통해 난도를 조절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직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의 수준으로 나머지 시험을 대비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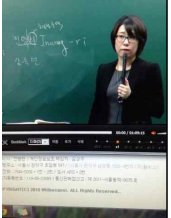
* 시험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문항 해설 및 적중 내용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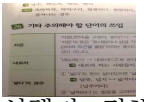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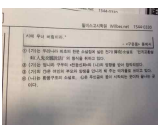
	문제와 해설	사진
1	문제와 해설 <형태론 - 품사의 변별> 문 1.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것은? ① 쌍둥이도 성격이 <u>다른</u> 경우가 많다. ② 그 사람은 <u>히튼</u> 말을 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다. ③ 그는 <u>갇은</u> 양념을 넣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④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u>외판</u> 집이 나타났다. 정답 : ① <해설> ‘쌍둥이도 성격이 <u>다른</u>’ : ‘다르다’가 활용한 문장으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다르다’는 서술성이 있는 형용사로, 이 문장에서는 뒤의 명사 ‘경우’를 수식하기 위해 관형형으로 쓰이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관형사로 쓰인 단어들이다. <보충설명> * 쌍둥이도 성격이 <u>다른</u> 경우가 많다 :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형. 서술성이 있으며 주술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다. * <u>다른</u> 사람들은 어디 있지?/<u>다른</u>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 관형사. 서술성이 없으며,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뜻을 지녀 바로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만 한다.	마무리와 단과, 문제풀이 형용사 다른과 관형사 다른 설명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2~문 3] (가) 광혜원 이월마을에서 칠현산 기슭에 이르기 전에 그만 나는 영문 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다. 누군가가 가라고 내 등을 떠밀었는지 나는 뒤돌아 보았다 아무도 없다 다만 눈발에 익숙한 먼 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게 자작나무 숲의 벗은 몸들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다 그렇구나 겨울 나무들 만이 ㉡타락을 모른다 (나) 슬픔에는 거짓이 없다 어찌 삶으로 울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오래오래 우리나라 여자야말로 울음이었다 스스로 달래온 울음이었다 자작나무는 저희들끼리건만 찾아든 나까지 하나가 된다 누구나 다 여기 오지 못해도 여기에 온 것이나 다름없이 자작나무는 오지 못한 사람 하나하나와도 함께인 양 아름답다 (다) 나는 나무와 나뭇가지와 깊은 하늘 속의 우듬지의 떨림을 보며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우쭐해서 나뭇짐 지게 무겁게 지고 싶었다 아니 이런 추운 곳의 ㉢적막으로 태어나는 눈엽이나 삼거리 술집의 삶은 고기처럼 순하고 싶었다 너무나 ㉣교조적인 삶이었으므로 미풍에 대해서도 사나웠으므로 (라) 얼마 만이냐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에게 십여 년 만에 ㉤강렬한 곳이다 강렬한 이 ㉥경건성! 이것은 나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을 내 벅찬 가슴은 벌써 알고 있다 사람들도 자기가 모든 낱알 중의 하나임을 깨달을 때가 온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이미 늙어버렸다 여기 와서 나는 또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작나무의 ㉦천부적인 겨울과 함께 깨물어 먹고 싶은 어여쁨에 들떠 남의 어린 외동으로 자라난다 (마) 나는 광혜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삭풍의 칠현산 험한 길로 서슴없이 ㉧지향했다 - 고은,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	
문 2. 제시된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기반성과 자기 연민의 슬픈 목소리가 시 전체를 통해 유지 되고 있다. ② 자작나무 숲을 지나는 과정은 통과 제의적 양상을 드러낸다. ③ (다)의 '미풍'은 삶의 아주 작은 국면을 뜻한다. ④ (마)는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서 오는 자신감이 투영되어 있다.	
정답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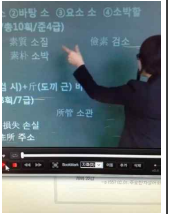
	<해설> 이 시는 시인이 실제 등산을 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작나무 숲을 거닐며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화자는 자작나무 숲을 통해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자작나무 숲’은 화자를 순수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작나무 숲과의 교감을 통해 새로이 인생의 진리를 터득하고 그것으로 앞으로의 삶의 시련에 대처해 나가려는 화자의 모습은, 1980년대에 시련을 겪었던 시인 자신에 대한 새로운 다짐으로도 읽을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삶의 경건성'에 대한 각성을 새로이 함으로써 참된 인간화 및 사회 민주화에 대하여 자신을 다시금 도약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반성과 연민의 목소리가 시 전체를 통해 유지된다는 ①의 진술은 틀린 것이다. <오답풀이> ② 통과의례란 새로운 상태로 넘어갈 때 겪어야 할 의식을 뜻하는 말로, 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고통과 시련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이 시의 화자는 자작나무 숲을 지나며 지나간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단계를 지향하고자 하므로, 이는 적절한 해설이라 할 수 있다. ③ ‘교조적’이라는 말은 현실의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대상을 믿고 따를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너무나 교조적인 삶이었으므로 미풍에 대해서도 사나웠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신념이나 대상에 너무 몰입해서 살아와서 삶의 작은 국면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의 진술이라 할 수 있다. ④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험한 길로 서슴없이 지향했다’는 표현은 반성과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도약 의지를 보이는 화자의 자신감이 투영된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문 3. 한자어를 한자로 옮길 때 바르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은? ① ㉠:正直, ㉡:墮落 ② ㉢:寂寞, ㉣:教條 ③ ㉤:強烈, ㉥:敬虔 ④ ㉦:天賦, ㉧:志向 정답 : ④ ‘지향’은 문맥상 작성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다는 뜻의 ‘指向(지향)’으로 써야 한다. 예) 등산복을 입은 중년 몇 사람이 목적한 산을 <u>指向(지향)</u>해 걸어갔다. * ‘志向(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한다는 의미이므로, 주로 ‘평화를 지향하다/안정을 지향하다/복지 국가를 지향하다’ 등으로 쓰인다. <해설> ① 正直 : 바를 정, 곧을 직 墮落 : 떨어질 타, 떨어질 락 ② 寂寞 : 고요할 적, 쓸쓸할 막	 모의고사 문 풀 12회 한 자 적중

	敎條 : 가르칠 교, 가지 조 *敎條 : 역사적 환경이나 구체적 현실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믿고 따르는 것. ③ 強烈 : 굳셀 강, 세찰 렬 敬虔 : 공경할 경, 정성 건	
4	문 4.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그는 잠시 <u>궁싯거리다</u>가 면접관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다. - 궁싯거리다 :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② 오랑캐꽃은 소복소복 무리를 지어 가며 <u>다문다문</u> 피었다. - 다문다문 : 공간적으로 배지 아니하고 사이가 좁 드문 모양. ③ 이 동네 사람들, 이 늙은이 주검 위에 <u>뗏장</u> 한 장씩은 덮어 주러 올 것이다. - 뗏장 : 장례 때 사용하는 삼베 조각. ④ 팔십 전을 손에 쥔 김 첨지의 마음은 <u>푼푼하였다</u>. - 푼푼하다 :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정답 : ③ <해설> ③ 뗏장 : 흙이 붙어 있는 상태로 뿌리째 떠낸 잔디의 조각. 예) 우리 형제는 올해 부모님의 산소에 뗏장을 새로 입히기로 했다. <오답풀이> ① 궁싯거리다 : 1. 잠이 오지 아니하여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리다. 예) 궁싯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 2.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예) 그는 잠시 궁싯거리다가 면접관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다. ② 다문다문 : 1. 시간적으로 잣지 아니하고 좀 드문 모양. 예) 서울 사는 아들도 어찌다 한 번씩 다문다문 집을 찾아왔다. 2. 공간적으로 배지 아니하고 사이가 좁 드문 모양. 예) 차가 산길에 접어들자 집들이 어찌다 하나씩 다문다문 보일 뿐이었다. ④ 푼푼하다 : 1.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예) 팔십 전을 손에 쥔 김 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2. 웅족하지 아니하고 시원스러우며 너그럽다. 예) 푼푼한 성품	뗏장 사진 ① 궁싯거리다 : 선재국어 1368쪽 ② 다문다문 : 선재국어 1371쪽 ③ 뗏장 : 선재국어 1374쪽 ④ 푼푼하였다 : 선재국어 1393쪽
5	문 5. 로마자 표기법이 잘못된 것은? ① 인왕리: Inwang-li ② 독립문: Dongnimmun ③ 같이: gachi ④ 하회탈: Hahoetal 정답 : ① 행정구역명이나 도로명을 쓸 때는 붙임표를 붙인다. 따라서 인왕리의 경우, 'Inwang-ri'로 써야 한다. '리'를 소문자 'ri'로 쓰는 것도 주의한다.	 인왕리 설명

	<해설> ② 독립문 : 자음동화가 일어난 발음 그대로 표기하되, 붙임표를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같이 : 구개음화가 일어난 발음 그대로 쓴다. ④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쓰며, 단모음 '외'의 표기인 'oe'에 주의한다.	
6	문 6. 각 단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대전 지법 제12 형사부는 지난 8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화학적 거세가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 지법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법이 자기 결정권이나 신체를 훼손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 화학적 거세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다.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30대 남성에게 첫 화학적 거세 판결이 내려졌다. 다음 달부터는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 법조계와 일부 인권 단체는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미국, 덴마크, 핀란드 등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약물 투여 기간에만 성욕이 감퇴할 뿐 범죄 재발 방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다. 성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화학적 거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① (가) :대전 지법은 헌법 재판소에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② (나) :현재 시행 중인 화학적 거세가 다음 달부터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③ (다) :화학적 거세는 범죄 재발 방지 효과가 없다. ④ (라)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화학적 거세가 시행 되어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요약은 각 단락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일반적 성격을 띤 문장을 찾아서 해야 한다. 법조계와 일부 인권 단체는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 주지 미국, 덴마크, 핀란드 등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뒷받침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을 요약한 내용, 즉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는 위헌 소지가 크다' 정도가 요약문으로 적절하다.	
7	문 7. 우리말 표현으로 옳은 것은?	

	① (시청 간부가 외부 전문가에게) 저는 시청에 근무하는 전우치 과장입니다. 교수님께 하 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② (간호사가 환자에게) 환자분, 주사 맞게 침대에 누우실게요. ③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범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④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저희나라 국민들은 독도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정답 : ③ <해설> 시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어머님’이다. 그런데 2012년 <개정 표준언어예절>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 친근한 대상이므로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머니’라고 해도 된다는 허용 내용이 첨부되었다. (2013 선재국어 437쪽) 또한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는 ‘아범, 아비’로 쓰며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그이’로 지칭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직함을 이름 뒤에 넣으면 높이는 표현이 된다. 따라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직함을 앞에 넣으므로, ‘저는 ~ 과장 전우치입니다.’로 써야 한다. 또한 ‘자문을 구하다’는 ‘자문을 하다’로 써야 한다. ② 선어말어미 ‘겠’은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이거나 완곡한 태도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높임의 뜻은 없기 때문에 높임 표현에서 남용하면 안 된다. (2013 선재국어 112쪽 내용 동일) 따라서 ‘누우실게요’가 아닌, ‘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쓰는 것이 좋다. ④ 나라는 낮추어 말할 수 없으므로, ‘저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를 쓴다.	 선택지 전체 적중 지문 사진들 넣기
8	문 8. 다음 글의 내용에 가장 부합되는 시조는?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며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더라. 대사 소리하여 묻되, “성진아, 인간 부귀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더뇨?” 성진이 고두하며 눈물을 흘려 가로되,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 불초하여 염려를 그릇 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세에 윤회할 것이어늘, 사부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천만 겁이라도 갚기 어렵도소이다.” 대사 가로되, “네 승흥하여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예함이 있으리오? 네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함이니, 네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였도다.” ① 首陽山 바라보며 夷齊를 恨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도 恨호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싸해 낫드니 ② 歸去來歸去來흔들 물러간 이 그 누구며 공명이 浮雲인 줄 사람마다 알건마는 세상에 꿈 깬 이 없으니 그를 슬허호노라 ③ 梨花에 月白호고 銀漢이三更인 제 一枝春心を 子規야 아라마는 多情도 病人 냥호여 줌 못 드러 호노라	 7회 모의고 사 구운몽 지문 및 주 제 적중

	④ 長安을 도라보니 北關이 千里로다 魚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濟世賢이 업스라 정답 : ② <해설> 김만중의 고전 소설 <구운몽>이다. 제시문은 성진이 꿈에서 깨어 인세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깨닫고, 스승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과 가장 부합되는 시조는 ②이다. 귀거래(歸去來) 귀거래(歸去來)한들 물러가니 귀 누구며 공명(功名)이 부운(浮雲)인 줄 사람마다 알건마는 세상에 꿈 깬 이 없으니 그를 구슬허하노라. - 이정보(李鼎輔) ‘귀거래(歸去來)’는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온 말로 고향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부귀공명이 구름과 같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헛된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구슬퍼한다는 내용의 시조이다. <오답풀이> ① 수양산 바라보며 : 사육신의 절개를 중의법으로 표현한 성삼문의 시조 ③ 이화에 월백하고 : 봄밤의 애상감을 세련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한 이조년의 시조. ④ 장안을 도라보니 북궐이 : 자연 속에서 머물러 살면서 현실을 지향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이현보의 시조.	
9	<글의 사실적 이해 - 글의 주제 찾기> 문 9.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래어는 원래의 언어에서 가졌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새 언어에 동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외래어의 동화 양상을 음운, 형태,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외래어는 국어에 들어오면서 국어의 음운적 특징을 띠게 되어 외국어 본래의 발음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한다. 자음이든 모음이든 국어에 없는 소리는 국어의 가장 가까운 소리로 바뀌고 만다. 프랑스의 수도 Paris는 원래 프랑스어인데 국어에서는 ‘파리’가 된다. 프랑스 어 [r] 발음은 국어에 없는 소리여서 비슷한 소리인 ‘ㄹ’로 바뀌고 마는 것이다. 그 외에 장단이나 강세, 성조와 같은 운율적 자질도 원래 외국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 둘째, 외래어는 국어의 형태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 외래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하다’가 반드시 붙어서 쓰이게 된다. 영어 형용사 smart가 국어에 들어오면 ‘스마트하다’가 된다. ‘아이러니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명사에 ‘-하다’가 붙어 형용사처럼 쓰인 경우이다. 셋째, 외래어는 원래 언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일례로 프랑스 어 madame이 국어에 와서는 ‘마담’이 되는데 프랑스 어에서의 ‘부인’의 의미가 국어에서는 ‘술집이나 다방의 여주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① 외래어의 갈래 ② 외래어의 특성 ③ 외래어의 변화 ④ 외래어의 개념	

	정답 : ② 두괄식 구성의 글이다. 맨 앞에서 주제문을 제시하고 이후 열거식 방식을 통해 제재를 해설하고 있다. 즉 첫 번째 문장 ‘ 외래어는 새 언어에 동화되는 속성을 지닌다’를 제시한 뒤, 외래어는 국어에 들어오면서 국어의 음운적 특성, 형태적 특징을 갖게 되며,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외래어의 속성’과 근접한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는 것이 좋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0	<문맥에 맞는 한자어 찾기> 문 10.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시대의 백자는 기교가 넘치는 고려 시대의 청자와는 달리 담백하여 () 멋이 있다. ① 곡진(曲盡)한 ② 소박(素朴)한 ③ 섬세(纖細)한 ④ 진중(珍重)한 정답 : ② <해설> ‘기교가 넘치는 고려 시대의 청자와는 달리’라는 문맥을 고려할 때,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하다’는 의미를 지닌 ‘素朴(소박)’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曲盡(곡진)하다 : 매우 정성스럽다. 매우 자세하고 간곡하다. ③ 纖細(섬세)하다 : 곱고 가늘다. 매우 찬찬하고 세밀하다. ④ 珍重(진중)하다 : 아주 소중히 여기다. 진귀하고 소중하다.	한자 소박 설 명 
11	<사실적 이해 - 내용 일치> 문 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소들이 결합하여 음절이 되고, 이것들이 다시 결합하여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면서 언어의 주요 기능인 의미 전달이 이루어진다. 음소들이 결합될 때 음소들의 음성적 특성, 즉 음성 자질들의 특성에 따라 앞뒤 음소들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변하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 경제’와 ‘표현 효과’ 두 가지이다. 즉, 소리는 발음할 때 힘이 덜 드는 방향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가까운 조음 위치나 비슷한 조음 방법의 소리가 연속된 경우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발음할 때 힘이 덜 들게 된다. 그래서 상이한 소리들이 비슷한 위치나 방법의 소리들로 닮아 가게 되는데 이것을 ‘동화’라고 한다. 곧 동화는 노력 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와 달리 음운의 변동에 ‘노력 경제’와는 상반된 심리 작용이 작동하기도 한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음소의 연결로 청각 효과가 약하다고 인지될 경우, 오히려 공통성이 적은 다른 음소로 바뀔 수 있다. 이처럼 발음상 힘이 더 들더라도 청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이화’라고 하며, 이에는 모음조화 파괴 현상과 사잇소리 현상 등이 있다. ① ‘노력 경제’와 ‘표현 효과’는 음운 변동의 주요한 원인이다.	

	②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심리적 원인이 개입될 수 있다. ③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화의 이점을 포기해야 한다. ④ 가까운 조음 위치나 비슷한 조음 방법을 사용할 경우 청각적 효과가 높아진다. 정답 :④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음소의 연○결로 청각 효과가 약하다고 인지될 경우, 오히려 공통성이 적은 다른 음소로 바뀔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를 볼 때, 비슷한 조음 방법을 사용할 경우 청각적 효과가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진술은 ④이다.	
12	<사실적 이해 - 내용 일치> 문 12. 다음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의보감 에서는 인간을 생식(生殖)을 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대별하였다. 남자 16세 이상, 여자 14세 이상의 성인과 그렇지 못한 소아의 구분이 그것으로, 남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정(精)을 생산할 수 있고 여자의 경우 14세 이상이어야 월경을 통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생식을 통해 후세를 이어 갈 수 있는 인간만이 참된 인간으로 정의된 것이다. 여기서 남정(男精)과 모혈(母血)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러한 남녀의 구분법은 단순히 생리적인 성 차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생식을 중시한 표현이었다. 남정의 개념이 생식 가능한 남자를 중심에 놓고 있는 것처럼, 모혈 역시 생식 가능한 여성만을 고려한 표현이다. 이에 따라 남성에게는 정(精)이, 여성에게는 혈(血)과 자궁(子宮)이 중요한 기능으로 파악되었다. ① 혼인이라는 사회적 의례가 매우 중요하다. ② 성인이라 하여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 ③ 인간의 사회적 중요도는 성인 남자→성인 여자→어린이의 순서이다. ④ 동의보감 에서는 질병의 원인에 따라 병을 분류한다. 정답 : ② 제시문은 <동의보감>에서 인간을 대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생식을 통해 후세를 이어 갈 수 있는 인간만이 참된 인간으로 정의된 것이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따라서 올바른 내용은 ②이다.	
13	<어휘 .한자 - 동음이의어 한자의 변별> 문 13. 밑줄 친 부분의 한자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뛰어난 ㉠技術을 가진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技術的으로 해결하느냐가 오늘날 교육의 과제이다. 우선 현재 인재 양성 실태의 정확한 ㉢記述을 바탕으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記述으로 불가능한 방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④ 동음이의어 한자어의 변별에 대한 문제이다. ▲ <u>技術(기술)</u> :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 예) 기술을 가르치다 ▲ <u>記述(기술)</u> : 대상이나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여 서술함. 또는 그런 기록. 예) 역사 기술 방법																																																																															
	따라서 문맥상 ㉔에는 ‘技術的(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으로 쓰는 것이 맞다. < 언어규범 - 표준어 표기 > 문 14.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나는 오랜만에 자장면을 시켜 먹기 위해 중국집에 전화를 했다. 종업원이 전화를 받고는 내가 있는 곳이 ㉑언덕배기라서 한 그릇은 배달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그럼 ㉒곱빼기를 시키면 올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기분 같으면 그놈의 ㉓대갈빼기를 휘갈겨 주고 싶었지만 음식이 올 때까지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어제처럼 단골 식당에서 ㉔뚝빼기를 시켰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를 했다.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7급 모의고 <table><tr><th>번호</th><th>출제 표기</th><th>정답 표기</th><th>번호</th><th>출제 표기</th><th>정답 표기</th></tr><tr><td>1</td><td>가래</td><td>가래</td><td>31</td><td>가래</td><td>가래</td></tr><tr><td>2</td><td>가래</td><td>가래</td><td>32</td><td>가래</td><td>가래</td></tr><tr><td>3</td><td>가래</td><td>가래</td><td>33</td><td>가래</td><td>가래</td></tr><tr><td>4</td><td>가래</td><td>가래</td><td>34</td><td>가래</td><td>가래</td></tr><tr><td>5</td><td>가래</td><td>가래</td><td>35</td><td>가래</td><td>가래</td></tr><tr><td>6</td><td>가래</td><td>가래</td><td>36</td><td>가래</td><td>가래</td></tr><tr><td>7</td><td>가래</td><td>가래</td><td>37</td><td>가래</td><td>가래</td></tr><tr><td>8</td><td>가래</td><td>가래</td><td>38</td><td>가래</td><td>가래</td></tr><tr><td>9</td><td>가래</td><td>가래</td><td>39</td><td>가래</td><td>가래</td></tr><tr><td>10</td><td>가래</td><td>가래</td><td>40</td><td>가래</td><td>가래</td></tr><tr><td>11</td><td>가래</td><td>가래</td><td>41</td><td>가래</td><td>가래</td></tr><tr><td>12</td><td>가래</td><td>가래</td><td>42</td><td>가래</td><td>가래</td></tr></table> 사 보충자료 적중, 마무 리책 등	번호	출제 표기	정답 표기	번호	출제 표기	정답 표기	1	가래	가래	31	가래	가래	2	가래	가래	32	가래	가래	3	가래	가래	33	가래	가래	4	가래	가래	34	가래	가래	5	가래	가래	35	가래	가래	6	가래	가래	36	가래	가래	7	가래	가래	37	가래	가래	8	가래	가래	38	가래	가래	9	가래	가래	39	가래	가래	10	가래	가래	40	가래	가래	11	가래	가래	41	가래	가래	12	가래	가래	42	가래	가래
번호	출제 표기	정답 표기	번호	출제 표기	정답 표기																																																																											
1	가래	가래	31	가래	가래																																																																											
2	가래	가래	32	가래	가래																																																																											
3	가래	가래	33	가래	가래																																																																											
4	가래	가래	34	가래	가래																																																																											
5	가래	가래	35	가래	가래																																																																											
6	가래	가래	36	가래	가래																																																																											
7	가래	가래	37	가래	가래																																																																											
8	가래	가래	38	가래	가래																																																																											
9	가래	가래	39	가래	가래																																																																											
10	가래	가래	40	가래	가래																																																																											
11	가래	가래	41	가래	가래																																																																											
12	가래	가래	42	가래	가래																																																																											
14	정답 : ④ 한글 맞춤법 54항 접미사 ‘배기’와 ‘빼기’의 구별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배기’와 ‘빼기’는 소리가 나는 대로 적는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의 예외가 ‘뚝배기’와 ‘학배기’이다. 따라서 ㉔의 표기가 답이다. <사실적 이해 - 내용 일치>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유형과 방식은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한자를 수용하여 그대로 사용되 우리말의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흔히 서기체 표기라 한다. 서기체 표기는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한자가 배열되고 한자의 뜻이 모두 살아 있으므로, 우리말의 문법 형태소를 보충하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이두체 표기로,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가 구분 되어 표기된다. 즉 어휘 형태소는 중국식 어휘가 그대로 사용되고 문법 형태소는 훈독, 훈차, 음독, 음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된다. 그리고 구나 절은 한문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를 가리지 않고, 훈독, 훈차, 음독, 음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향찰체 표기라 한다. 국어 문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차자 표기 방식이라 하겠다. 넷째, 한문 문장을 그대로 두고 필요한 곳에 구결(입결)을 달아 이해의 편의를 도모한 문장이 있다. 이를 흔히 구결문 이라고 한다. ① ‘서기체 표기’는 문법 형태소를 반영하였다. ② ‘이두체 표기’는 문법 형태소가 표기되지 않는다.	구결 설명 																																																																														
15																																																																																

	되직하게 꿰인 것. ④ 강굴 : 물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아니한 굴의 살. <올바른 어휘와 문장의 쓰임>	
18	문 18.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바른 문장은? ① 우리 농구 팀은 실력의 <u>월등한</u>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팀에 지고 말았다. ② 그의 성공은 불우한 가정환경에 굴하지 않고 성실히 노력한 <u>탓이다</u>. ③ 입사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을 못 자서인지 체중이 많이 <u>줄었다</u>. ④ 우리 방법대원들은 주민의 안전을 <u>보호하기</u>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정답 : ③ ‘줄다’는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작아지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으므로, ‘체중이 줄다’는 올바른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월등하다’는 다른 것과 견주어서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이므로, 상대편보다 힘이나 세력이 약하다는 의미의 ‘열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② ‘탓’은 부정적인 문맥에서 쓰이는 단어이므로,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④ ‘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본다는 의미이므로, ‘안전을 보호하다’가 아니라, ‘주민을 보호하다’로 써야 한다. 또는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로 쓰는 것이 좋다.	
19	<글의 사실적 이해 - 제목 찾기> 문 19.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허균의 不羈奔放한 탈선적 생활은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여러 천재들을 연상케 한다. 안정복에 의하면, 허균은 심지어 남녀의 정열을 天이라 하고 分別倫紀를 聖人之教라 하여, 天이 성인보다 높은 것인 만큼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천품의 본성은 감히 어길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글깨나 하는 浮薄한 文士들이 그의 門徒가 되어 天學을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서양의 天主學과는 霄壤의 차이가 있는 것이요, 견주어 같이 논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허균이 仙道, 특히 불교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로 인하여 罷官까지 당한 일이 있었다. 또 일찍이 燕京에 왕래한 관계로 天主實義를 읽었으리라는 것도 추측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天이 성인보다 높다는 사상을 유독 西學의 영향이라고 봄은 하나의 속단이 아닐까. 성인보다 높은 天이라고 하여 그 天이 반드시 서학의 天主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본연지성을 그의 존엄성에 있어서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天命之謂性의 성 자체의 존엄성이 성인이 제정한 倫紀보다 우월하다는 뜻일 것이다. 삼강오륜이 절대 불가침의 도덕률로 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있어서 대담무쌍한 발언이라 하겠으나, 오히려 모든 도덕률의 근거가 다름 아닌 인간의 본연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려 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공자도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물론 허균 자신의 貪淫縱慾을 從心所欲不踰矩의 경지와 혼동하였다면 그것은 용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을 무시하고 그저 舊殼만을 墨守하려는 태도로	

	부터 용감하게 탈피하여 보다 근원적인 天과의 관련에 있어서 인간성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① 허균의 천(天)과 인간의 본연지성 ② 허균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통해 본 그의 천재성 ③ 서학의 입장에서 본 허균의 천학 ④ 조선 시대 사상계의 경직성 정답 : ① 제시문은 허균의 ‘天(천)’ 사상이 서학의 영향이라고 단정짓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의 앞에 이 글의 주제가 놓여 있는데, 허균의 사상을 ‘오히려 인간의 본연지성을 그의 존엄성에 있어서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은 ①이 가장 적절하다.	
20	<고전문법 - 의문형 종결어미> 문 20. 다음 글의 설명에 어긋나는 문장은? 중세 국어의 의문문은 명사에 보조사가 통합되어 이루어 지기도 한다. 의문사가 없이 가부(可否)의 판단만을 묻는 판정 의문에는 ‘가’가 쓰이고, 의문사가 있어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에는 ‘고’가 쓰인다. 의문의 보조사 ‘가, 고’는 ‘ㄹ’이나 ‘ㅣ’ 모음 뒤에서는 ‘ㄱ’이 ‘ㅇ’으로 약화되어 ‘아, 오’로 나타난다. ① 이 두 사꺼미 眞實로 네 향것가 ② 그 빠디 훈가지오 아니오 ③ 니르샤디 이 엇던 光明고 ④ 法法이 므슴 얼굴오 정답 : ② 제시문은 중세국어의 의문문의 종결 어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과 수업 시간에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의문사가 잇는 설명 의문문에는 ‘-고’가 쓰인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러한 내용에 어긋나는 예를 찾으라고 했으므로, 의문사가 없는데도 ‘-고’ 형을 사용한 ②를 답으로 골라야 한다.	고전문법 - 의문사고 단과강의 15 회 45강